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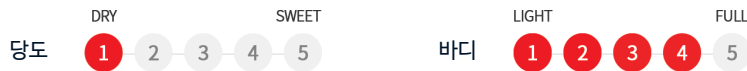


‘친환경 유기농 와인의 대부, 론 와인의 명가’

## 엠 샤푸티에 에르미따쥬 드 로레 블랑

M.Chapoutier Ermitage de Loree

|          |  |    |       |
|----------|--|----|-------|
| 지역       | 프랑스 > 론 > 북부 론   |    |       |
| 포도품종     | 마르산 100%   |    |       |
| 알코올      | 14.5%  | 용량 | 750ml |
| 시음 적정 온도 | 10-13℃   |    |       |
| 테이스팅 노트  | 진한 노란색을 띠다, 강렬한 토피 향, 레몬 향, 아카시아 꽃의 향기가 느껴진다. 복합미가 가득한 팔레트에서 점차 잘 익은 과일 느낌으로 변해간다. 론 화이트가 보여줄수 있는 최고의 정점 |    |       |
| 페어링 TIP  | 흰 육류 / 익힌 해산물 / 생 해산물 / 흰 살 생선 / 채소(샐러드) / 익힌 채소 / 부드러운 치즈 / 단단한 치즈 / 밀가루 음식(피자, 파스타 외)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|



### 제품설명



레인지 중 가장 핵심이자 Icon 레인지로 샤푸티에의 상징 그 자체인 “Fac et Spera”를 따 온 레인지이다. 1989년 미셸 샤푸티에 에르미따쥬 지역에서 첫번째 Selection Parcellaire (별도로 관리된 파셀:포도밭)을 개발하여 와인을 생산하였고 현재는 프랑스 외의 프리미엄 생산 지역에서 24개의 Fac & Spera 레인지를 점차 넓혀 가고 있다. 한 가지의 특정 포도밭, 파셀에서 재배된 포도들로만 한 가지 와인을 만드는 이 레인지는 떼루아와 포도 자체의 느낌과 캐릭터가 와인에 고루 담기게 하는 작업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M.샤푸티에의 정신과 가장 닮아있다고

할 수 있다. 와인 양조자는 와인을 만들 때 떼루아가 많은 작업을 자연스럽게 하여 와인에 녹아 들도록 한다.

### 수상내역



2020빈티지 로버트 파커 Robert Parker 95점  
 2019빈티지 로버트 파커 Robert Parker 96점  
 2018빈티지 로버트 파커 Robert Parker 96+점

※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,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 
 ※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